

# 석유산업의 여건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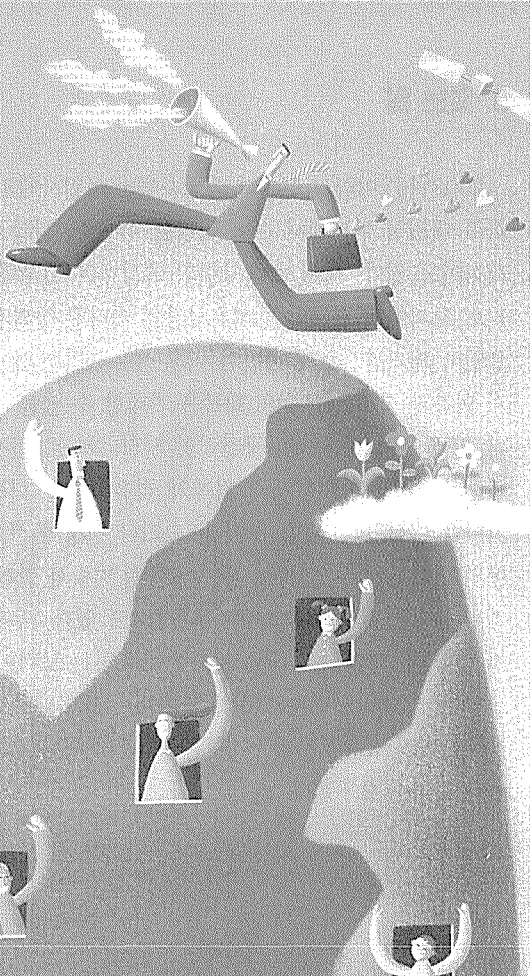
글 · 진종욱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1.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산업화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석유소비 세계 6위, 원유수입 세계 3위, 정제능력 세계 5위로서 경제력에 걸맞는 에너지 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9.1%(2002년 추정)로서 여전히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의 가격수준 및 수급상황이 LNG, 석탄, 전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석유의존도는 겉으로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최근 석유산업의 여건은 과거와 같은 성장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석유소비의 증가세가 환경규제의 강화와 국민들의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로 인해 LNG는 2015년까지 연평균 4.7%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석유소비 증가는 현저히 둔화되어 2020년까지 연평균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수요둔화에 대한 새로운 성장 원천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수요둔화는 1997~1998년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유업체의 시설투자가 마무리되던 시기와 비슷하여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간산업으로써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아래



1997년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의해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경쟁을 통한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진입규제, 수출입규제도, 유통경로 규제등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됨으로써 업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 육성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석유산업의 경쟁촉진과 대외개방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7년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의해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경쟁을 통한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진입규제, 수출입규제도, 유통경로 규제등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됨으로써 업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석유공급에 있어서도 향후 석유수요 증가분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동 OPEC 산유국들의 생산점유율이 현재의 28% 수준에서 2010년 30%, 2020년 33%로 상승할 전망이고, 중동 OPEC 원유의 수출점유율은 현재의 39%에서 2020년 6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73%에 이르는 높은 중동의 존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오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동정세를 볼 때 취약한 공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 가.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석유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도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가능성에 베네수엘라의 석유노동자의 파업이 2002년 12월 2일 이후 장기화 됨에 따라 석유수급 불안 요인으로 연일 국제유가가 2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전세계

계적으로 450 ~ 500만b/d의 석유공급 차질이 발생하여 OPEC의 대체생산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석유위기때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석유 비축유와 유가완충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비축유는 2002년 48일분, 71백만배럴 수준이었던 것을 2008년까지는 약 77일분 141백만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유가완충자금도 2008년까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과 잠재적 원유 공급지역인 카스피해, 중앙아시아지역 등 해외 석유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재 2%에 머물러 있는 자주개발율을 2010년까지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에너지 절약시책의 강력한 추진, 산유국과의 협력 증진 및 소비국간의 공동대응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1월 신국환 산자부 장관께서 중동의 주요 원유, 가스 공급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를 방문한 것도 최근 불안한 석유시장 정세와 관련한 석유외교의 하나였다.

### 나.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경쟁체제 도입원칙에 따른 시장기능 강화를 지금까지의 조치를 향후에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 금지 및 석유판매업자간 업역제한 등 일부 잔존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석유 유통시장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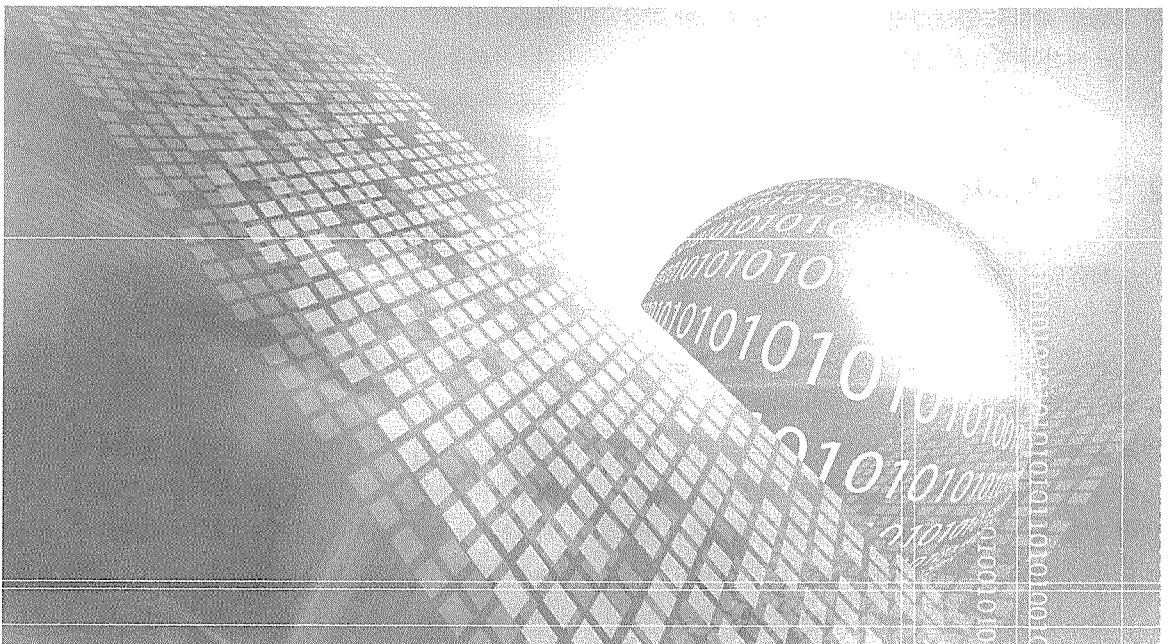
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노력과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쟁'과 '효율성'에 입각한 석유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정경쟁 여건 보장을 위한 시장감시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실패가 석유수급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석유 제품 사용기기(보일러, 각종 냉난방기기, 조명기기 등)

제조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고, 가스·발전·지역난방 사업 등 타 에너지분야로 동반 진출을 통해 네트워크 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제품 판매에 더하여 품질관리, 고객관리, 하위유통업체에 대한 경영지도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산업으로 이미지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의 수요가 최근 수송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업계 공동으로 환경 기준을 앞서는 중장기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청정연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원유 관세가 주요 경쟁국과 OECD 국가들이 무세 또는 저세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5%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석유산업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전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석유산업의 경쟁체제 확대와 더불어 국내 에너지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관세, 내국세, 석유·LNG부과금, 비축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1차에너지 세계개편에 의한 연료간 가격구조도 우선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원유 관세가 주요 경쟁국과 OECD 국가들이 무세 또는 저세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5%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석유산업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전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 다. 동북아 석유협력 활성화

동북아 석유수요는 향후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2010년에는 유럽전체의 석유수요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대형 유조선 접안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동북아 석유물류의 중심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비축시설의 활용을 통한 산유국과의 공동비축 사업을 필요공간이 확보되는 2006년을 대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원유공급선과 함께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된 이슈로서 중동의 아시아 판매원유가격이 미주, 유럽지역 판매원유에 비해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일명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

다. 마침 지난 2002년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된 국제에너지포럼(일본 오사카 9. 21~23)의 ASEAN+한중일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가 공식 논의된 바 있었다. 향후 아시아 프리미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준유종에 대한 연구 및 역내 현물시장의 활성화와 중동의존도 해소를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하고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3. 결론

지금 국내 석유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석유부문의 자유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작금의 시대에 석유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발전을 주도할 있는 주체로서 기업, 협회 등 업계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업계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 자기발전” 노력을 기울여 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해 기업의 자기혁신은 물론이고 정부와 학계 등의 배전의 공동노력이 있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가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 석유물류의 중심기지로 발전해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